

비구조화 집단상담 참여자의 언어반응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이 춘 회[†] 김 정 희

전북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교육생 대상으로 10회기의 비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축어록에 나타난 집단원의 언어 반응 유형이 집단발달 단계, 상담성과, 그리고 각 회기 후 상담소감문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언어반응 유형은 HIM(Hill Interaction Matrix)을 사용하였고, 상담성과는 상담효과요인 질문지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집단발달 초기부터 HIM의 영역3 언어반응(집단원중심·작업이전수준)과 영역4 언어반응(집단원중심·작업수준)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상담성과의 차이를 보인 집단원들 사이의 언어반응 유형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상담회기 후 집단원이 작성한 상담소감문은 언어 반응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치료적이고 바람직한 언어유형에 민감한 상담교육생은 집단발달 초기부터 영역4 언어반응을 사용하고자 했고, 상담소감문의 작성은 치료적 언어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담성과와 언어반응 유형과의 관계에서 비교집단원들의 상담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상담소감문의 분석시에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상담소감문이 집단과정에 주는 효과가 큰 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상담교육생, 언어반응 유형, 상담소감문, 상담성과

이춘회는 전주예수병원에, 김정희는 전북대학교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춘 회, (561-29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5 우성아파트 107-1002,
전화 : 063) 230-8941 E-mail : chleecp@unitel.co.kr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최종목표는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집단상담에서는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과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이 오가는 상호작용에서 상담성과가 일어난다. 집단상담을 통해 집단원은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집단원-집단원, 집단원-집단, 집단원-집단지도체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해와 수용,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작업 등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Yalom(1995)은 이러한 치료적 변화가 복잡한 과정이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치료적 요인들’이라고 불렀다. Yalom이 분류한 ‘치료적 요인들’에는 이타주의, 집단응집력, 보편성, 내면적 대인간 학습, 외면적 대인간 학습, 생활지도/안내, 정화, 동일시, 가족재구성, 자기이해, 희망의 고취, 실존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성장집단 연구에서 가장 유용한 치료적 요인들은 내면적 대인관계, 자기이해, 정화로 나타났다(Yalom, 1995). 전종국(1995)과 이수림(1997)의 연구에서는 같은 집단내에서 각 집단원의 개인특성에 따라 상담효과 요인¹⁾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상담교육생은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하여 많은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특히 초보 상담교육생들은 대인관계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T 집단 경험이나 지금-여기(here-and-now)를 강조하는 비구조화 집단상담 등에 참여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는 집단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제공해주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느낀 것을 자기이해 및 피

1) 국내연구에서 ‘치료적 요인’이라는 용어는 성장촉진요인 혹은 상담효과요인이라는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에 참여한 대상이 대학원생이기에 ‘상담효과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드백 과정을 통해 표현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김계현, 1992).

상담연구의 목표는 상담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상담접근과 절차 혹은 어떤 상담기법과 조건들이 내담자 변화를 달성하는데 더 효율적인지를 평가하는데 있다(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집단상담에 대한 연구중의 대부분은 집단상담 경험이 내담자의 동기나 불안, 성격, 대인관계, 자아개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성과 연구의 양상을 띠고 있다(이장호 등, 1997). 그러나 집단상담 실시 전후에 상담성과에 관한 검사로 나타난 변화의 차이는 내담자의 변화정도만을 확인할 뿐이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내담자간에 어떠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를 밝히지는 못한다. 따라서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양상을 밝히려는 과정연구(process study)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과정이란 상담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정서, 행동, 인지 및 상담자와 내담자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지칭한다. 과정연구는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과정연구는 과정변인과 성과변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이장호 등, 1997).

개인상담 장면에서 상담과정과 상담성과를 연결 지은 정남운(1998)의 연구는 최종 성과와 상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김순진(1998)은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과 중요 과정변인인자 중간 성과인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신경진(1998)은 상담과정에서 침묵과 상담성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즉시적 성과는 체험수준으로, 중간 성과는 회기평정치로, 최종 성과는 MMPI와

SCL-90-R 및 상담성과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여 치료개입 변인인 침묵과 세 종류의 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게슈탈트 기법을 적용한 집단상담에서 심혜숙과 한기백(1996)은 체험척도를 사용하여 상담과정을 연구하였다.

상담과정에서의 내담자-상담자 상호작용과 함께 내담자의 변화를 탐색 확인함에 있어서 한 개인이 보이는 언어적 반응에는 그 개인의 내면적인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Hill(1965)은 집단과정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단내의 상호작용 내용(집단상담에서의 화제나 주제)과 이에 따른 집단원들이나 치료자의 언어반응을 평정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행렬표 HIM(The Hill Interaction Matrix)를 만들어서 집단과정내의 상호작용 내용을 미시적 수준으로 평정했다(그림 1). 이 도구는 크게 내용

(content)과 작업(work)의 두 차원으로 분류된다. 내용차원은 자기이해를 목표로 한 성취수준에 따라 집단원중심(member centered)과 비집단원중심(non-member centered)의 두 수준으로 분류되고, 작업차원은 대인관계에서의 위협과 내담자-상담자 역할의 감수정도에 따라 작업이전(pre-work)수준과 작업(work)수준으로 분류된다. 내용차원 중 화제, 집단내용은 비집단원중심 수준에 속하며, 개인, 관계내용은 집단원중심에 속한다. 작업차원에서는 관습적, 주장적 언어반응은 작업이전 수준에, 사려적, 직면적 언어반응은 작업수준에 속한다. 예를 들면 화제중심/관습적 반응은 사람들과 수다떠는 것, 사람들을 놀려대기, 잡담나누기, 사람들과 농담하기 등이 포함된 의미나 내용들로 구성된다. 관계중심/직면적 반응은 사람들이 몰으면 그들에 대한 내 반응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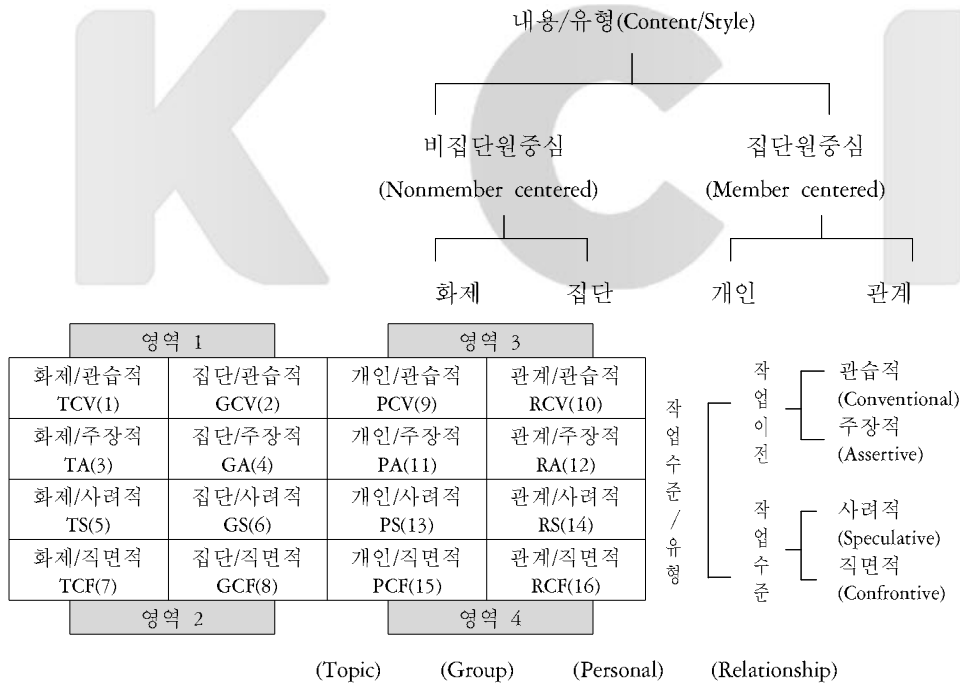


그림 1. Hill의 상호작용행렬표(HIM)

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를 솔직하게 검토해 보게 하려고 노력하기,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논의하게 만들려고 하기,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문제를 다루도록 만들려고 애쓰기 등의 내용이나 의미를 포함한다.

Hill과 Gruner(1973)는 HIM을 이용하여 집단발달 단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집단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오리엔테이션기, 탐색기, 그리고 생산기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HIM에서의 영역1(비집단원중심·작업이전수준)은 오리엔테이션기에 해당하며, 집단발달을 추구하는 탐색기에는 영역2(비집단원중심·작업수준)와 영역3(집단원중심·작업이전수준)이 속한다. 영역4(집단원중심·작업수준)는 집단발달의 생산기를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는 결정짓기, 문제해결, 그리고 지금-여기에서의 작업을 한다. 영역4 단계에서는 영역2와 영역3 단계에서 배우고 개발된 집단상호작용을 더 유지시킨다. 그러나 위의 연구 결과와 달리, 신경정신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Sisson, Sisson과 Gadza(1977)연구에서는 집단발달 초기부터 영역4 언어반응인 개인/직면 언어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강순화(1994)는 상담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마라톤 집단상담에서 HIM에 의해 분류한 언어반응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성과와 집단발달 단계를 살펴봐왔다. 집단응집력이나 상담회기평가 같은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상담성과와 언어반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구조적인 집단인 HPS(Human Potential Seminars)집단의 집단원들이 게슈탈트집단이나 T집단보다 더 치료적이고 효과적인 집단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어록에 나타난 이들의 실제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면, HPS집단에서 치료적인 언어반응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집단발달 단계에 따른 언어반응 유형의 변화는 HIM을 이용한 연구들이 가정한 집

단발달 단계를 따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짧은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집단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결과이므로 좀 더 장기적인 집단상황에서의 연구결과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Yalom(1995)은 상담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치료과정 요약물 집단치료의 보조기술로 사용했다. 내담자는 이러한 요약서를 읽음으로써 집단의 지속성을 갖게 되고, 집단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며, 지금-여기를 강조하게 되고, 집단에 오는 원래의 목적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치료자로 하여금 장기적 시간적 조망을 갖도록 했다.

상담교육생이 비구조화된 집단상담 경험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한 도구이므로, 집단원중심이고 작업중심적인 언어유형을 사용할 때 더 큰 상담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매 회기후 각 집단원이 작성한 상담소감문은 집단과정에 영향을 주어서 상담성과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집단과정의 상호작용을 집단원 언어반응 유형과 관련지어 알아보고자 한다. 즉 집단원의 언어반응 유형이 집단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상담성과의 차이를 보인 집단원의 언어반응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집단원 언어반응 유형이 상담소감문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봄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방 법

연구대상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중에서 자기성장집단에 참여를 원하는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여기를 강조하는 비구조화형태의 집단상담이 일주일에 1회씩 3시간동안 10회기 실시되었다. 집단상담 동안 집단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타인에 대한 예민성을 향상시켜서 대인관계에서 정직, 탐색, 직면, 자기개방, 고조된 정서적 표현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집단역동을 이해하여 집단상담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삼았다. 집단상담지도자는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교육하고 있으며, 주로 비구조화 자기성장집단에 20년 이상 경험이 풍부한 집단상담전문가가 실시했다.

측정도구

상담성과의 측정

매 회기 후 상담소감문을 작성했고, 상담종료 후 상담효과요인 질문지를 작성했다. 상담효과요인 질문지는 Yalom(1995)이 개발한 것으로 12개의 상담효과요인별로 각 5문항씩 전체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종국(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고,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사용했다. 상담효과요인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하여 문항수인 60으로 나눈 것을 구하였다.

언어반응 유형

언어반응 유형은 집단과정 연구에 사용되는 Hill(1965)의 상호작용행렬표(HIM)를 사용했는데, 이는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미시적 수준의 평정도구로서 언어반응 유형을 16개로 범주화한 것이다(그림 1). 본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 두명이 언어반응 유형을 평정했다.

연구절차

집단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상담 전 과정의 녹음과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일주일에 1회기 3시간씩 10주 동안에 비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했고 매 회기 후 상담소감문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 전체 집단원이 읽었다. 10회기가 종료되고 나서 6개월 후에 집단원들이 Yalom(1995)의 상담효과요인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상담효과요인 질문지에 의한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큰 집단원 두명(A집단원 점수 4.20, B집단원 점수 4.02)과 점수가 낮은 집단원 두명(C집단원 점수 3.43, D집단원 점수 3.30)을 선정했다. 상담단계의 구분은 금명자(1994)의 10회기 종결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처럼 전반1/3을 초기로, 중반1/3을 중기로, 후반1/3을 말기로 구분하였다. 상담회기 중 초기(1회기)², 중기(4, 5회기), 말기(9, 10회기)에 해당하는 축어록을 작성했다.

두 명의 평정자가 연습용 축어록을 가지고 HIM의 Scoring Manual(Hill, 1965)에 입각하여 사전 훈련을 받았다. 훈련후 예비평정시 평정자간의 일치율이 70%였고, 불일치 되는 언어반응에 대한 평정자간의 논의 후 재일치율이 95%가 되었을 때 실제 축어록 평정에 들어갔다. 평정자는 다섯 회기의 축어록을 읽고 선정된 네명 집단원들의 언어반응을 16개 유형중의 하나로 평정했다(그림 1). 두 평정자의 언어반응 유형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논의 후 재차 평정했다. Hill(1965)의 연구를 토대로 영역 1 언어반응(비집단원중심 · 작업이전 수준), 영역 2 언어반응(비집단원중심 · 작업수준), 영역 3 언어반응(집단원중심 · 작업이전수준), 영역 4 언어반응(집단원중심 · 작업수준)의 네유형으로 묶어 빈도처리 하였고, 영역 3 언어반응과 영역 4 언어반응은 각각 4개의 언어반응 유형으로

2) 2회기의 녹음자료의 누락으로 초기단계는 1회기만 평정하였다.

로 표 2에서처럼 세분화해서 빈도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결 과

집단상담 과정 1회기를 초기, 4회기와 5회기를 중기, 9회기와 10회기를 말기로 했을 때, 집단과정 발달에 따른 언어반응 유형은 표 1과 같다. 집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A, B, C집단원은 치료적인 언어영역인 영역4 언어반응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특히 A집단원은 영역4 언어반응이 집단발달 초기에 비해 말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D집단원은 초기부터 영역4 언어반응 비율이 62.5%로 다른 집단원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집단과정 중기에 약간 더 증가하나 집단말기에는 중기보다 약간 더 감소했다.

표 1. 집단과정에 따른 집단원의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초기	중기	말기	
A집단원	영역1	0	0	0
	영역2	0	0	0
	영역3	66.7	50.0	7.2
	영역4	33.3	50.0	92.9
B집단원	영역1	0	1.4	0
	영역2	7.1	0	0
	영역3	50.0	40.1	31.1
	영역4	42.8	58.5	69.0
C집단원	영역1	11.1	3.0	8.4
	영역2	0	0	0
	영역3	55.5	26.5	7.2
	영역4	33.3	70.6	84.6
D집단원	영역1	0	0	4.3
	영역2	0	0	0
	영역3	37.5	27.3	30.5
	영역4	62.5	72.8	65.3

각 집단원에서 회기별 언어반응 영역 중 영역3과 영역4의 언어반응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영역3과 영역4의 언어반응을 16개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A집단원의 회기별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1(초기)	4(중기)	5(중기)	9(말기)	10(말기)	
영역1 합계	0	0	0	0	0	
영역2 합계	0	0	0	0	0	
영역3 개인/관습	개인/관습	16.7	37.5	25.0	14.3	0
	개인/주장	0	0	12.5	0	0
	관계/관습	50.0	0	12.5	0	0
	관계/주장	0	0	12.5	0	0
합 계	66.7	37.5	62.5	14.3	0	
영역4 개인/사려	개인/사려	33.3	37.5	25.0	28.6	100
	개인/직면	0	0	0	0	0
	관계/사려	0	12.5	0	14.3	0
	관계/직면	0	12.5	12.5	42.9	0
합 계	33.3	62.5	37.5	85.8	100	

표 3. B집단원의 회기별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1(초기)	4(중기)	5(중기)	9(말기)	10(말기)	
영역1 합계	0	2.7	0	0	0	
영역2 합계	7.1	0	0	0	0	
영역3 개인/관습	개인/관습	21.4	6.8	44.4	18.2	16.7
	개인/주장	0	17.8	11.1	0	0
	관계/관습	14.3	0	0	18.2	0
	관계/주장	14.3	0	0	9.1	0
합 계	50.0	24.6	55.5	45.5	16.7	
영역4 개인/사려	개인/사려	21.4	12.3	22.2	18.2	16.7
	개인/직면	7.1	53.4	0	0	33.3
	관계/사려	14.3	6.8	22.2	18.2	16.7
	관계/직면	0	0	0	18.2	16.7
합 계	42.8	72.5	44.4	54.6	83.4	

A집단원은 표 2에서와 같이 1회기에는 관계/관습의 언어반응을 많이 나타냈다(50%). 4회기에서는 1회기에 비해 영역4 언어반응이 의미있게 증가했고, 10회기에서는 개인/사려 언어반응이 10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개인/직면의 언어반응 유형은 전 회기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았다.

B집단원은 표 3에서와 같이, 1회기에 비해 4회기에서 영역4 언어반응이 의미있게 증가했고, 4회기에서 개인/직면 언어반응을 제일 많이 보였다(53.4%). 그러나 5회기에서 개인/관습 언어반응이 44.4%로 증가하여 영역3 언어반응이 55.5%로 전 회기 중 가장 높았다.

C집단원은 표 4에서와 같이, 1회기에 비해 10회기에서 영역3 언어반응이 감소했고, 영역4 언어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회기에서 영역4 언어반응이 100%를 보였으며, 9, 10회기에서 개인/직면의 언어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D집단원은 표 5에서와 같이, 1회기부터 영역4 언어반응이 62.5%로 높았으며, 모두 개인/사려와 개인/직면 언어반응이었다. 4회기에서는 모든 언어반응이 개인/사려, 개인/직면반응이었으며, 집단 과정에 따라 1회기부터 영역4의 언어반응이 높았기 때문에, 다른 집단원과 달리 집단과정의 발달에 따라 영역4의 언어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집단원의 상담효과요인 질문지에 의한 점수를 보면 표 6과 같다. 본 집단상담 과정 중에 다른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두명의 집단원의 상담효과요인 점수는 각각 4.40과 3.85로 높은 편에 속했으나, 집단성장에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상담효과요인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세명의 집단원을 제외한 후, 아홉명 집단원들의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했다. 표 7에서와 같이 상담효과요인 점수가 비교적 큰 A, B집단원과 상담효과요인 점수가 비교

표 4. C집단원의 회기별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1(초기)	4(중기)	5(중기)	9(말기)	10(말기)
영역1 합계	11.1	0	5.9	0	16.7
영역2 합계	0	0	0	0	0
영역3 개인/관습	33.3	0	17.6	14.3	0
개인/주장	0	0	11.8	0	0
관계/관습	22.2	0	17.6	0	0
관계/주장	0	0	5.9	0	0
합 계	55.5	0	52.9	14.3	0
영역4 개인/사려	0	40.0	23.5	14.3	33.3
개인/직면	0	20.0	11.8	0	0
관계/사려	33.3	40.0	5.9	28.6	16.7
관계/직면	0	0	0	42.9	33.3
합 계	33.3	100	41.2	85.8	83.3

표 5. D집단원의 회기별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1(초기)	4(중기)	5(중기)	9(말기)	10(말기)
영역1 합계	0	0	0	1.8	6.7
영역2 합계	0	0	0	0	0
영역3 개인/관습	12.5	0	9.1	7.1	13.3
개인/주장	12.5	0	36.4	17.9	0
영역1 관계/관습	0	0	9.1	8.9	6.7
영역1 관계/주장	12.5	0	0	7.1	0
합 계	37.5	0	54.6	41.0	20.0
영역4 개인/사려	37.5	50.0	18.2	25.0	26.7
개인/직면	25.0	50.0	0	17.9	6.7
관계/사려	0	0	27.3	12.5	20.0
관계/직면	0	0	0	1.8	20.0
합 계	62.5	100	45.5	57.2	73.4

적 적다고 보고한 C, D집단원 모두 집단 초기부터 영역3 언어반응(집단원중심·작업이전수준)과 영역4 언어반응(집단원중심·작업수준)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상담효과요인 점수가

표 6. 집단원의 상담효과요인 점수

집단원	상담효과요인 점수
A집단원	4.20
B집단원	4.02
C집단원	3.43
D집단원	3.30
전체평균 ±SD	3.75±0.31

표 7. 상담성가에 의해 구분된 집단원의 집단과정에 따른 언어반응 유형(%)

유형	회기			
	초기	중기	말기	
A,B집단원				
영역1	0	0.7	0	
영역2	3.6	0	0	
영역3	58.4	45.0	19.1	
영역4	38.1	54.3	81.0	
C,D집단원				
영역1	5.6	1.5	6.3	
영역2	0	0	0	
영역3	46.5	26.9	18.8	
영역4	47.9	71.7	74.9	

낮은 집단원들의 경우에는 집단말기에도 영역 1 언어반응이 남아 있었다(6.3%).

각 집단원의 상담후 소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집단원은 1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집단상담에 임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집단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힘이 들었다고 했다. 4회기와 5회기의 상담소감문에서 본인이 힘들어했던 동일한 상황에 대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이 대견스러웠다고 했다. 10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개인과 타인에 대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전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기뻐했다고 했다.

B집단원은 1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집단에 집중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집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4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4회기 집단이 색다른 경험이었고, 본인이 느끼길 피해온 다른 면을 만났다고 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표현하였고, 상담소감문의 대부분이 본인의 경험과 느낌에 관한 것이었다. 5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본인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집단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0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본인이 집단원과 집단지도자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공감됨을 느꼈고, 집단에 대한 막연했던 기대가 큰 경험으로 이어짐을 표현했다.

C집단원은 1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집단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본인을 발견했고,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4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다른 집단원의 힘겨움과 긴장을 같이 느끼면서도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9회기와 10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다른 회기와 달리 본인에 대한 언급보다는 다른 집단원에 대한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다.

D집단원은 1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본인을 직면하고자 했고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4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도 집단내 본인의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였고, 그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본인의 가족과의 관계를 현 집단원과의 관계로 연결하여 통찰했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과정 중에 체험했던 대인관계 패턴을 집단 밖의 대인관계에까지 확대하였다고 했다. 10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을 보면서 감정을 풀어야 될게 많으며, 힘들어 느껴진다고 표현했고, 모든 회기 후 상담소감문

에서 다른 집단원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본인의 갈등과 부정적인 느낌을 끝까지 직면해 보려고 노력했다.

논 의

이 연구는 상담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집단발달 단계, 상담성과, 및 상담소감문을 집단원의 언어반응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집단과정 발달에 따른 언어반응 유형은 집단 초기부터 영역 3 언어반응과 영역 4 언어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영역 4 언어반응은 집단원 대부분에서 집단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2회기 축어록의 누락으로 1회기만을 초기로 했지만, 집단과정에 따라 언어반응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임승환, 1989)를 지지했다. 그러나 HIM을 이용하여 집단발달의 오리엔테이션기에는 영역1 언어반응을 보이며, 탐색기에는 영역 2 언어반응과 영역3 언어반응이 혼재해 있고, 생산기에는 영역 4 언어반응을 나타낸다고 했던 Hill 등(1973)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집단발달 초기부터 영역4 언어반응이 많았다고 보고한 신경정신과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한 Sisson 등(1977)의 연구결과와 상담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강순화(199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이 일반인이 아니고 상담교육생이라는 점에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교육생은 치료적이고 바람직한 언어반응에 대한 훈련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집단과정 중에 영역4 언어반응을 사용하고자 노력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역1 언어반응과 영역2 언어반응이 적었던 요

인 중의 하나는 본 연구에 참여했던 집단원들이 대부분 집단시작 전에 친숙한 관계라는 점과 1회기를 제외하고 매 회기 시작 전에 지난 회기에 대한 상담소감문을 읽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어 지난 회기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곧바로 영역3 언어반응과 영역4 언어반응을 유도했을 것이다.

상담효과요인 점수에 따라서 상담성과를 구분해 볼 때 집단원들의 언어반응 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상담성과가 낮은 집단원들은 집단말기에도 영역1 언어반응이 남아 있었다. 모든 집단원들이 1회 이상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나, 본 집단상담 과정 중에는 두 집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 집단상담 과정 중에 다른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두 집단원의 상담효과요인 점수는 높은 편에 속했으나, 상담성과에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원들의 상담효과요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3.75±0.31)를 고려해 볼 때, 비교연구대상 집단원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상담효과요인 검사를 10회기 종료 직후 실시하지 못한 점이 상담성과와 언어반응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Greenberg(1986)는 변화과정에 대한 상담연구를 즉시적 성과(immediate outcome), 중간 성과(intermediate outcome) 및 최종 성과(final 또는 ultimate)를 모두 측정하여 각 성과들을 연결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했다. 이수림(1997)과 전종국(1995)의 연구 결과에서는 집단원 개인 특성에 따라 상담효과요인 지각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원의 개인특성에 대한 점도 고려하지 못했다.

언어반응 유형을 매 회기 후 상담소감문과 연

관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A집단원은 영역4 언어반응 유형 중 개인/사려 반응을 많이 보였고 개인/직면 언어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1회기와 10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음을 언급한 내용과 잘 연관되었다. B집단원은 4회기에서 개인/직면 언어반응을 많이 보였으며, 다른 회기 후 상담소감문과 달리 4회기 후 상담소감문은 주로 본인에 대한 경험과 느낌만을 언급했다. C집단원은 4회기에서 영역4 언어반응이 100%를 차지했는데, 상담소감문에서도 다른 집단원의 힘겨움과 긴장을 같이 느끼면서도 완전히 몰입하지 못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집단말기에 개인/직면 언어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상담소감문의 내용이 주로 다른 집단원에 대한 피드백이었다는 점과 잘 일치된다. D집단원은 4회기에서 영역4 언어반응이 100%를 차지했으며, 4회기후 상담소감문에서도 상담과정 중에 체험했던 감정을 재조명하면서 가족이나 집단안에서의 대인관계 패턴을 집단 밖의 대인관계까지 확대하여 통찰했음이 나타났다.

네 집단원 모두 4회기에서 영역4 언어반응의 의미있게 증가했는데, 이것은 네 집단원 모두 4회기 후 상담소감문에서 깊은 차원의 체험을 했다고 기술한 점과 잘 일치했다. 이와 같이, 영역4 언어반응 유형이 가장 치료적인 언어반응임은 회기 후 상담소감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다. 또한 집단원들은 상담소감문을 쓰면서 상담과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고, 상담과정 중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Yalom(1995)이 집단치료의 보조기술로서 치료과정의 요약을 기록한 후 내담자에게 읽도록 하거나 내담자와 공동으로 요약을 기록했을 때에 더 큰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비구조화 집단상담에서 집단발달 초기부터 영역3 언어반응과 영역4 언어반응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원이 일반인이 아닌 치료적 언어반응 유형에 민감한 상담교육생이라는 점과 매 회기 후 상담소감문을 작성함으로써 각 회기 초반부터 상담소감문에 대한 서로의 피드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발달 단계에 따른 언어반응 유형에서 상담교육생과 일반인은 차이를 보이며, 매 회기 후 상담소감문의 작성은 집단원으로 하여금 치료적 언어반응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상담성과의 차이를 보인 집단원들의 언어반응 유형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원들의 상담효과요인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동일집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담성과의 차이가 큰 집단원들을 비교하고 상담성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회기 후 집단원이 작성한 상담소감문은 집단원의 언어반응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상담소감문 작성으로 상담과정을 집단원 나름대로 재조명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은 차원의 통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담소감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틀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순화 (1994). 집단상담에서의 언어반응 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상담자교육에서 마라톤 형태의 집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계현 (1992). 상담교육 방법으로서 개인 슈퍼비

- 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 김순진 (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명자 (1994). 상담단계와 내담자 체험수준에 따른 상담자 개입 패턴의 즉시적 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경진 (1998). 상담과정에서의 침묵과 상담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혜숙, 한기백 (1996). 체험수준 변화에 의한 게슈탈트 기법적용 집단상담의 과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101-133
- 이수림 (1997). 자기지향적, 타인지향적 태도에 따른 치료요인의 효과비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 김순진, 정남운, 조성호 (1997). 상담의 연구방법. 서울: 박영사.
- 임승환 (1989). 대면집단에서의 언어반응 변화추세와 자아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국 (1995). 집단상담에서의 상담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상담학회지: 대학상담연구*, 6(1), 131-154
- 정남운 (1998). 상담과정에서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reenberg, L. S. (1986). Changes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9.
- Hill, W. F. (1965). *Hill Interaction Matrix. A method of studying interaction in psychotherapy groups*. Youth Study Center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ill, W. F., & Gruner, L. (1973). A study of development in open and closed therapeutic groups: A research note. *Small Group Behavior*, 4(3), 351-381.
- Sisson, P. J., Sisson, C. J., and Gadza, G. M. (1977). Extended group counseling with psychiatry residents: HIM and the Bonney scale compared. *Small Group Behavior*, 8(3), 351-360.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4th ed.)*. N.Y.: Basic Books.

원 고 접 수 일 : 2001. 12.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17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A Case Study about Verbal Response Style of Participants in Unstructured Group Counseling

Chun-Hee Lee

Chung-He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the stage of group development, the I counseling outcome, and the summary of group session focusing the group members' verbal response style in unstructured group counseling of counselor trainees. HIM(Hill Interaction Matrix) was used for the verbal response style and Curative Factor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counseling outc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ction 3 verbal response(member centered · pre-work oriented) and section 4 verbal response(member centered · work oriented) of HIM were appeared a lot from the beginning of the group development. Second, no obvious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verbal response style among the group members who showed the difference of the counseling outcome. Third, the summary of group session had the close relation with the verbal response style and it made the group members induce the therapeutic verbal response. Based upon these results, counselor trainees who were sensitive to the therapeutic and desirable verbal response style had the tendency to use the section 4 verbal response from the beginning of group development. It was suggested that the therapeutic verbal response can be induced by the summary of group session. The difference in counseling outcome of group members was not obvious and the objective tool to analyze the summary of group session was not used, but it was discussed that the summary of group session had an large effect on group process.

Key Words : counselor trainee, verbal response style, summary of group session, counseling outcome